

2022

2022.06.24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01 HIS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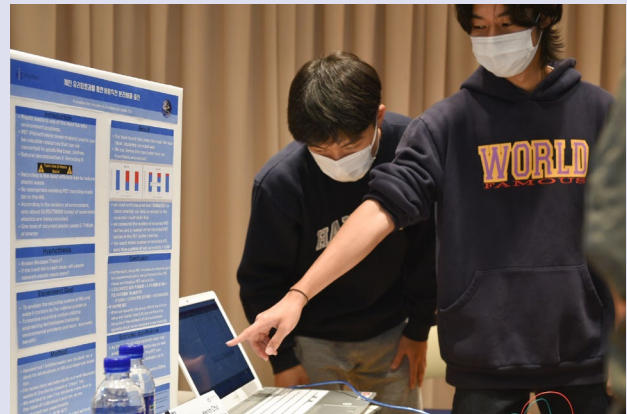
04 ES News



02 Devotion



05 MHS News



03 HIS Spotlight



06 Library News



07

Nurse's Office News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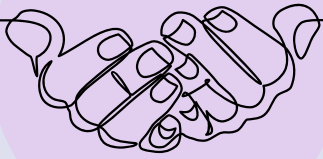
시편 119: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Psalm 119:9

08

Creative Corner



HIS Message

By 최세연 | 중고등 교무디렉터

Ms. Sei Yeon Choi · MHS Academic Director

삶으로 가르침

Teaching with Life

이솝우화 중 엄마 게와 아기 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게와 아기 게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엄마 게는 아기 게가 옆으로 걷는 모습을 보고 엄마처럼 똑바로 걸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옆으로 걷느냐고 하며 아기 게를 나무랍니다. 그러자 아기 게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 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해변에 엄마 게와 자신의 발자국이 똑같이 나 있는 것을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엄마 게는 자기도 아기 게와 똑같이 옆으로 걷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부모로 산다는 것,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매일 매일의 삶이 아이들에게는 가르침이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이에게서 발견할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One of Aesop's fables is the story of a mother crab and a baby crab. While the mother crab and the baby crab were taking a walk together, the mother crab saw the baby crab walking sideways and told him to walk straight just like his mother. Then the baby crab replied that he was following his mother's instructions, and told his mother that his footprints were identical to those of his mother on the beach. Only then did the mother crab realize that she was walking sideways just like the baby crab.

One of the reasons why it is not easy to live as a parent or as a teacher is probably because there is a sense of pressure that everyday life is a lesson for children. Parents feel uncomfortable when they discover in their children what they don't like in themselves. Even at the moments teachers discipline

옳지 않은 행동을 훈육하는 순간조차도 좋은 본모습을 보여야 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좇아 자라게 하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엄마 계처럼 우리도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걸음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올바르게 걸어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함께 성장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죠?”라고 묻는 아이들이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hildren for bad behaviors, they remember to set good examples.

However, we come to realize that teaching children as parents and teachers is a blessing of God that enables us to grow like Christ. Like the mother crab, we look back on our own wrong steps through our children's responses and try to walk right as we rely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at is good about believing in Go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ers and non-believers?” We hope and pray that children who ask questions like these find answers in the lives of their parents and teachers who strive to walk with God every day, become like Jesus, and enjoy His grace and joy.

Devotion



02

By 정상우 | 중고등 성경 교사

Mr. Sangwoo Jung · MHS Bible Teacher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기

Living According to God's Timeline

최근에 TV 드라마 한편을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 남은 생애동안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여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고, 에베소서 5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로는 이 구절이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시간을 지혜롭게 최대의 효과를 내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에서는 때가 악하기(because the days are evil)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 혹은 “말세”이기 때문에

Recently, I watched a TV drama series. In the series, the main character was living a time-limited life, trying to find the true meaning of life for the rest of his life. For the main character, time was so precious that he showed his best efforts not to spend his days in vain.

After watching these scenes, I was reminded of Ephesians 5:16: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We Christians should use time wisely to make the maximum effect. But why?

First, the verse says, “because the days are evil.” This means that the time in which we live is “the end time” or “the end.” (Since Jesus came down from heaven to earth, we live in the end times.) In this time, our enemy is increasingly virulent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더욱 발악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만큼, 악의 세력도 더욱 더 악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17절)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을 기점으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단지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s time goes by...”와 “Time flies!”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글 표현으로도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혹은 영화를 분류할 때 “이 것은 killing time용 영화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의 시간은 목적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시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첫번째 설교 혹은 선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가복음 1:15). 한글 성경에서는 “때가 찼다”고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때가 왔다(the time has come)”라고 번역함으로써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바울의 글도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갈라디아서 4:4) 즉 “When the set time had come, God sent his Son...”으로 적혀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들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몇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이 그냥 왔다가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하여 삶을 허비하는

and tries to devour the souls of people. As the Gospel has been preached and the Kingdom of God has been advancing, the forces of evil are at work even more actively. So in the next verse, the apostle Paul exhorts,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is the will of the Lord” (v. 17).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starting from this verse, we can realize **how to use our time** and, further, **what kind of life we should live.**

Modern people perceive time as something that simply passes by, as one can see in English expressions such as "As time goes by..." and "Time flies!" Koreans too often say, "Oh, why doesn't time go by?" Or, when you classify a movie, "This is a movie for killing time." From this point of view, time seems to pass by without any purpose.

But the Bible teaches us that time comes toward us with a purpose. The first sermon or proclamation of Jesus shows this.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ark 1:15). Also, Galatians 4:4 describes the coming of Jesus as follows: "When the set time had come, God sent his Son..." In short, God reigns by a timeline He has set for this world. At the center of that timeline is Jesus Christ. **By the first coming of Jesus, the Kingdom of God was established on earth and it will be completed and fully revealed by his second coming. And we should always keep this timeline in mind as we live on.**

Those who do not know about the timeline of God's salvation may fall into these errors: The first is nihilism. They waste their lives because they see life as something that simply comes and goes. The word "YOLO (You only live once)" reflects this mindset. Second, people may b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without having a firm

것입니다. 요즘 사용되는 단어인 “YOLO (You only live once)”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승리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과학만능주의”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의 멸망을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시대(과학 기술의 진보를 예로 들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의 끝이 있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테살로니가전서 4:16-5:11; 베드로후서 3장 참고). 그 증거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태복음 12:39; 16:4)”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극에 도달하여 창조세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 혹은 교훈(예: 시간은 금이다)들을 통해 시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 예로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놓치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디모데후서 4:1-2), 주님의 제자를 계속해서 양성해야 합니다(마태복음 28:18-20). 여러분은 이 “시간표”와 “부르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foundation. This connects with "humanism" and "scientism." People with this idea think that the end of humanity can be prevented by human works, and are confident that this current era is the golden time based on the progress of science. However, God clearly promised us that there will be an end to this world and that it would come by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see 1 Thess 4:16-5:11; 2 Pet 3). We can predict the end as we are living in the time of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Matt 12:39; 16:4)" and the contamination of the environment has reached a state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recover.

We already know the priceless value of Time, through our life-experience or proverbs (e.g., "Time is gold"). But the Bible teaches more than that. That is, "We should live according to God's timeline." We are to prepare the way for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one practice can be to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to do good. Finally, both in season and out of season (2 Tim 4:1-2), we are to preach the gospel and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continually (Matt 28:18-20). My closing question is this: "Do you live according to God's timeline and calling?"

HIS Spotlight



Developing a Christ
Cultivating

03



Alumnus · 졸업생 동문

김성현 전도사

Mr. Seong Hyun Kim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저는 한동글로벌학교에 2010년에 7학년으로 입학해서 2013년 2월에 중학교를 졸업한 김성현입니다. 저는 현재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M.DIV 과정 재학중입니다. 현재 시카고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에 영어부 담당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Mr. Seonghyeon Kim graduated from the Middle School of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in 2013. He is currently studying the Master of Divinity program i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Also, He is serving at the Salvation Army Mayfair Community Church as an English Ministry pastor.

Q. HIS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What did you like about attending HIS?

HIS가 저에게 특별했던 곳이었던 이유는 재학 중에 만났던 소중한 인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선생님들과 같이 재학했던 친구들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성꾸러기였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저처럼 학창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HIS를 다닐때 저를 다 받아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지도해주셨던 선생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또한 HIS에서 같이 생활했던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친구와 선후배들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HIS was a special place because of the great relationships I had while attending school. I was not an exemplary student and would get a lot of detentions. During my youth ministry, I met students who experienced a period of turmoil during their school days. My teachers were sacrificial and passionate about shaping me in faith. Also, I was blessed to meet friends who could encourage and pray for one another even now.

Q.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Is there any advice you would like to give to current HIS students?

선배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한동글로벌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은 그러지 않은 인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장 명확하게 발견할 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학창 시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우리는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성실성과 전문성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실성과 전문성이 있는 인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과 공부를 통해 성적이나 성과보다 성실성과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학창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As a senior and as a pastor, I want to say this more than anything to my juniors: "Believe in Jesus Christ while attending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A life that believes in Jesus as the Lord is incomparable to a life that does not. I think that the time of youth is the best season to discover God's will and vision for them. First and foremost,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allow Him to lead your life.

Second, I'd like to say this to my juniors. When Joseph was sold into Egypt and served as a slave in Potiphar's house, we can see that Joseph was faithful and professional. Through the Bible, we can confirm that one of the commonalities among those whom God entrusted with his work is their integrity and professionalism based on faith. I hope that you can develop integrity and professionalism beyond performance and grades as you study at HIS.

Q.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세요.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먼저는 저 또한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는 과정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7월 2일에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pray for me that I live faithfully in God while I am both studying in graduate school and doing a ministry at the same time. And I will get married on July 2nd, 2022. I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pray for our family.



ES News



성경 퀴즈 대회
Bible Trivia

04

By 박에스터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성경 퀴즈 대회

Bible Trivia



6월 13일(고학년)과 14일(저학년)에 초등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며 준비하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는 40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Bible Trivia took place on June 13th(G 4-6) and 14th(G1-3) for elementary students. They studied the Gospel of John for a month and participated in Bible Trivia, answering 40 questions.



Plickers 카드의 기술을 이용해 학생들의 답변을 봄으로써 성경 퀴즈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tudents used Plickers cards to show their answers, and the use of technology made Bible Trivia go smoothly. We pray that students used the opportunity to study the Word of God in depth.



MHS News

공연예술 분장 실습

Performing Arts Dress-up Practice

Movie Night

과학 전람회

Science Fair

물리학 달걀 낙하 실험

Physics Egg Drop Experiment

70살의 나에게 편지쓰기

A Letter For Me at 70

포항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

Participating in
Pohang Street Basketball Competitions for Youth

05

By 서지훈, 중고등 음악 교사 | 윤영실, 중고등 미술 교사

Ms. Ji Hoon Suh · MHS Music Teacher | Ms. Young Shil Yun · MHS Art Teacher

공연예술 분장 실습

Performing Arts Dress-up Practice

11학년 공연예술기획, 공연예술실습 수업에서 무대 분장 전문가의 특별 강연을 듣고, 두 명씩 짝이 되어 동물 분장을 하는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In the 11th grade Performing Arts Planning and Performing Arts practice class, a special lecture by a stage makeup expert was held, and two students were paired together to practice animal makeup.



각종 동물이나 동물 캐릭터를 의상과 소품까지 꼼꼼히 준비하여 분장하고, 재료와 과정, 느낀 점 등을 PPT로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Students prepared costumes and props to dress up as various animals / characters. Later, they organized the process and their thoughts and gave a 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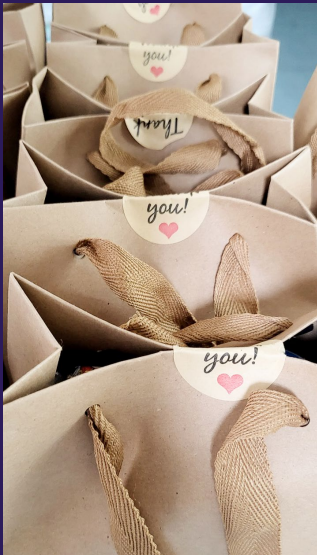
Movie Night

By 김소중 | 학생회 지도 교사

Ms. Sojoong Kim · Student Council Advisory Teacher

무비나잇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한 학기에 한 번 진행됩니다. 학생회는 무비나잇을 위해 학생들이 보고싶은 영화 투표를 받고, 스낵박스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였고 관람 후에는 스낵박스를 가지고 귀가하였습니다.

Movie Night, held each semester, is an event in which students watch a movie with friends and get closer with one another. The Student Council served by taking votes to select the movie and by preparing snack boxes for students. This semester, we watched 'Spider-Man: No Way Home,' which was the highest vote. students watched the movie comfortably and joyfully together, and after watching the movie they went home with a snack box.



By 김세윤 | 중고등 과학 교사

Mr. Seyoon Kim · MHS Science Teacher

과학 전람회

Science Fair

매년 HIS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인이자 주연이 되는 과학 행사인 Science Fair가 열립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탐구과정을 세우고 그 결과물을 공동체와 나눕니다. 올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Every year we hold Science Fair, a science-related school event in which students play a central role at HIS.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life or to satisfy scientific curiosity, students set up inquiry processes and share the results with HIS community. We introduce this year's projects presented by our students.

• **이예나(8A), 최로아(8A)**

콩은 서로 다른 pH의 액체들 중 어떤 액체 속에서 가장 잘 자랄까?

• **원혜류(8A), 최민주(8B)**

비누, 클렌징폼, 클렌징 오일, 물 : 어떤 것이 세안하기 가장 좋을까?

• **안현빈(11A), 조하림(11A), 박경태(11A), 김강희(11A)** 아이스 브레이킹

• **김휘진(11B), 조의연(12B)**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살균제의 효과에 대한 비교와 분석

• **Yena Lee(8A), Roah Choi(8A)**

In which liquid among various kinds of liquid with different pHs will the bean grow the best?

• **Hyeryu Won(8A), Minju Kim(8B)**

Soap, cleansing foam, cleansing oil, water: Which one is the best for washing our faces?

• **Hyunbin An(11A), Harim Cho(11A), Kyungtae Park(11A), Kanghee Kim(11A)** Breaking the Ice

• **Hwijin Kim(11B), Euiyeon Cho(12B)**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effects of sterilizing agents on the prevention of bacterial transmission





- 송예슬(10A), 한태이(10C)
단열 페인트, 커피 가루
- 홍윤(12A)
에너지 수확 : 열전 발전
- 김은호(12B), 이은우(12C)
도서 추천 알고리즘
- 김희준(11B), 권순재(12A)
물을 더 효과적으로 운송하는 방법은?
- 신영성(12B), 차주호(12B)
파도를 막기 위한 테트라포드(방파제) 리모델링
- 송욱찬(11B), 임주형(11A)
UV-C를 이용한 자가 살균 및 충전 핸들
- Yeseul Song(10A), Tei Han(10C)
Insulation paint, coffee ground
- Hong Yoon(12A)
Energy Harvesting: Thermoelectric generation
- Eunho Kim(12B), Eunwoo Yi(12C)
Book recommendation algorithm
- Heejun Kim(11B), Soonjae Kwon(12A)
How to transport water more efficiently?
- Youngseong Shin(12B), Juho Cha(12B)
Remodeling tetrapods to stop the waves
- Wookchan Song(11B), Juhyung Lim(11A)
Making self-sterilizing & charging handle using UV-C

과학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확장하고 연구 및 조사하여 직접 실험까지하는 Science Fair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HIS 학생들의 다양한 탐구와 협력과정이 기대가 됩니다.

The Science Fair helps students to expand the concepts they learned during science classes, by researching and conducting experiments. We hope that it was an opportunity to foster creativity and teamwork among students.



By 김세윤 | 중고등 과학 교사
Mr. Seyoon Kim · MHS Science Teacher

물리학 수업 달걀 낙하 실험

Egg Drop Experiment in Physics

12학년 물리학 수업에서 달걀 낙하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우는 단원에서 충격의 시간을 늘린다면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원리를 배웠고 이를 이용하여 달걀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했습니다.



In the 12th grade physics class, students conducted an egg drop experiment project. In the lesson of learning momentum and impact, we learned the principle that if you increase the time of impact, the size of the force applied will be smaller, and each team used this to create a structure that reduces the size of the force applied to the egg. They had to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in creating structures.

- ❶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함
- ❷ 10초 이내에 구조물에서 달걀을 뺄 수 있어야 함
- ❸ 쿠션의 효과가 있는 스폰지, 뽕뽕이, 스티로폼 등 사용 금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만든 구조물을 2층, 3층, 5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어느 높이까지 살아남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험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 ❶ Avoid air resistance
- ❷ Must remove the egg from the structure within 10 seconds
- ❸ May not use sponges, peeks, styrofoam, etc. that have the effect of cushions

The students dropped the structures they created creatively from the heights of the second, third, and fifth floors to see up to which height their structures survived. It was a time for students to show their enthusiasm for creative ideas and experiments.



By 방선기 | 중고등 창체부 교사

Mr. Sunki Pang · MHS Teacher in the Co-curriculum Team

70살의 나에게 편지쓰기

Writing a Letter to Me at 70

학생들은 SA (Special Activity) 시간에 70살이 된 나에게 편지를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살이라는 나이는 지금 학생 시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 중 대부분이 지나가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만이 정립되고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가던 직업에서 은퇴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이 시기를 생각하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tudents had time to write a letter to me at the age of 70 during a SA (Special Activity) session. The age 70 will be a time where the things we held dearly at younger ages fade away and only the core values in our lives remain. It will also be a time where we retire from our work and look back on our lives. Students thus had time to think about their future and write about what really matters and will remain in their lives.





By 광창민 | 중고등 영어 교사
Mr. Changmin Kwak · MHS English Teacher

포항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

Participating in Pohang Street Basketball Competitions for Youth

우리 학교 중학생들이 포항 YMCA 및 포항시농구협회에서 주최한 청소년 3대3 길거리 농구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비록 예선 탈락을 했지만 학생들은 경기를 통하여 팀 안에서의 화합과 팀워크, 상대편에 대한 배려 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인솔하고 감독하면서 학생들과 더 끈끈한 사제간의 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Some of our MS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3 on 3 street basketball competition for youth hosted by Pohang YMCA and Pohang Basketball Association. Although they were eliminated from the preliminary round, it was a meaningful time for the students to learn harmony, teamwork, and consideration for their opponents through the games. I was also able to experience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while leading and supervising them.

By 조정우 | 중고등 수학 교사
Ms. Jung Woo Cho · MHS Math Teacher

수학경시대회 수상

Math Competitions Awards

2022년 5월 3일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각 학년별 수학 경시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어-수학과 한국-수학으로 구분하여 학년 별 배운 범위 안에서 통합적인 내용으로 학년 별 난이도에 맞게 출제되었으며, 우수자를 선정하여 2022년 6월 21일(고등)과 6월 23일(중등) 채플시간 이후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하였습니다.

On May 3rd, 2022, a math competition was held in each grade to encourage curiosity and motivation to learn math among students. The competitions were divided into international math competitions and Korean math competitions. And integrated questions were asked within the common level of each grade. Then we awarded winning students with golden, silver, and bronze awards after chapel services on Jun 21st (High School) and Jun 23rd (Middle School).



Library News

THE COMMON RULE

창비 세계 문학 70

폴스또이

안나 카레니나

창비 세계 문학 71

창비 세계 문학 72

폴스또이

안나 카레니나

창비 세계 문학 71

폴스또이

안나 카레니나 2

창비 세계 문학 71

우리아이오. 바스 위

태양의 돌

북디자인 & 인디자인 초청 특강

Book Design & InDesign Special Lecture

우리 함께 읽어요!~

Let's Read Together!~

나도 북큐레이터~!

I'm a Bookcurator~!

06

893
폴570
v.1

893
폴570
v.3

893
폴570

893

By 이희정 | 도서관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북디자인 & 인디자인 초청 특강

Book Design & InDesign Special Lecture

김진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도서부 코코보코(cocobo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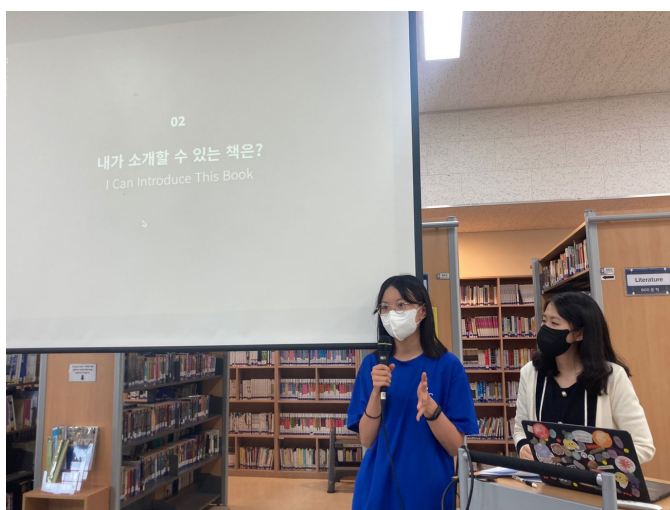
우리는 무수한 '기록'들의 순간을 살아가지요. 모든 책은 기록의 저장소이며 어떤 책이든 그 책의 크기나 지향만큼 독자는 저자의 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개인의 기록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록까지 다양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 책에 대하여 바른 관점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 15일 코코보코는 학교 홍보를 맡고 계신 김진실 선생님을 모시고 기록을 담은 책의 '겉'과 '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책의 물성과 메시지가 어떻게 의미 있는 만남을 이끌어 내는지 생각하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자신의 기록을 어떻게 책으로 제작하며, 나아가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책으로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디자인에 대해 소개를 받은 후 우리학교 소식지 HIS Connection에 대해 콘텐츠 취합, 제작, 발송 과정을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Book Club Cocoboco with Ms. Jinsil Kim

We live in countless moments of 'records.' Every book is a storage of record and the reader is influenced by the author's writings, as much as the size or orientation of the book.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ave the right attitude and thoughts about books that contain various records from personal trivial records to the record of God's Word.

On June 15th, Cocoboco invited Ms. Jinsil Kim who's in charge of school promotion as a special lecturer and learned from her how the physical nature and message of the book could lead to meaningful encounters as they focused on two keywords - 'outside' and 'inside.' It was a special time for the students to be able to share how to introduce their favorite book to others, how to make their own records into a book, and how to pass the Bible's record meaningfully to many people as their own unique book. Next time, the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InDesign and learn how to gather contents, produce, and publish HIS Connection.



우리 함께 읽어요!~

Let's Read Together!~

김장미 선생님 추천 도서

제목 :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

이 책은 귀농한 작가가 우연히 돼지 세 마리를 키워 잡아먹으면서 경험한 일들을 특유의 유머와 감성으로 써낸 에세이입니다.

농업학교에서 돼지들을 분양 받은 후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기르고 잡아먹은 모든 과정을 솔직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돼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당황스러움, 두려움, 망설임, 죄책감, 미안함 등의 감정과 생명에 대한 윤리, 공장식 사육에 대한 회의, 올바른 육식 생활에 대한 의견 등의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어느 채식주의자의

고백 / 존 맥두갈 / 사이몬북스

Recommended by Ms. Jangmi Kim

Title : Vegetarian who raised pigs

This book is a humorous and emotional essay about the experiences of a noble artist who accidentally raised three pigs and ate them.

After purchasing the pigs at an agricultural school, he raised the pigs and later slaughtered them. The book illustrates this process in a warm and frank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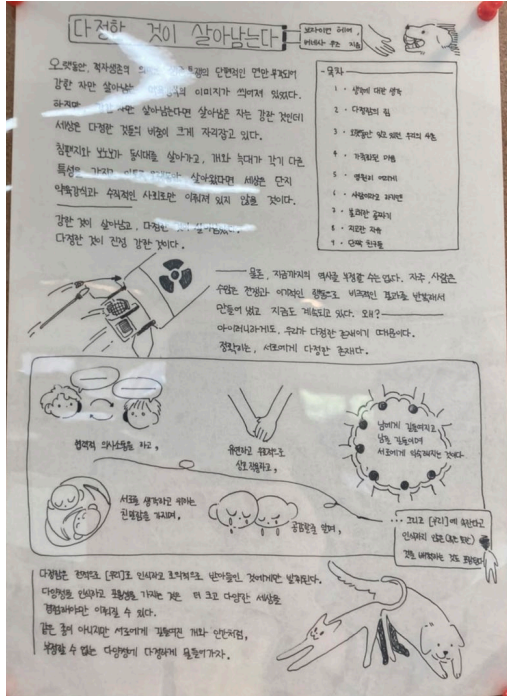
This book contains complex feelings such as embarrassment, fear, hesitation, guilt, and sorry, as well as ethics for life, skepticism of factory breeding, and opinions on the right carnivorous life, providing readers with various issues to think about.

Book to Read Together : The Starch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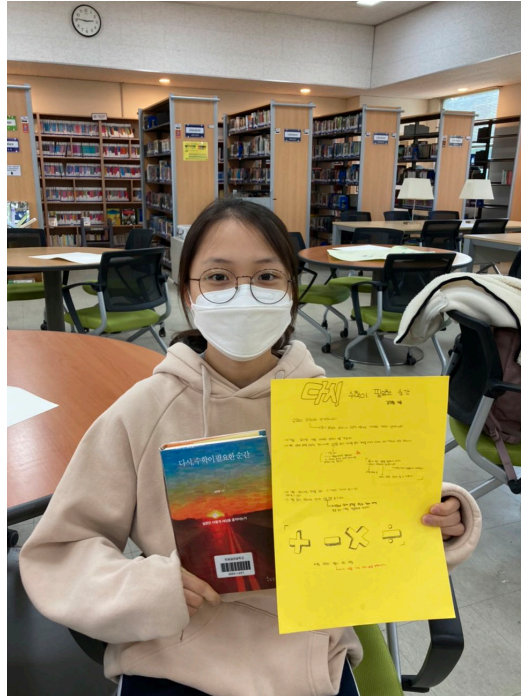
/ John McDougall / Simon Book



나도 북큐레이터~! I'm a Bookcur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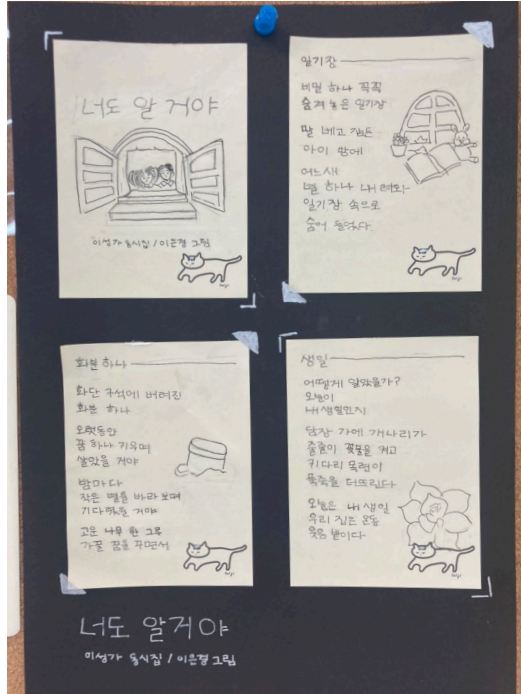
유승주(12학년) | Seungju Yoo(12th Grade)



성아인(8학년) | Ain Sung (8th Grade)



서상울(4학년) | Roger (4th Grade)



도서부 이해인(7학년) | Book Club Haein Lee (7th Grade)

경북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출 도서 서평 작성시 기록 인정

Write your book reviews in the following website: <https://bit.ly/3s3aIKb>



문의사항 (Contact) | 이희정 도서관 사서 (Ms. Hee Jung Lee) • heejunglee@his.sc.kr • 054-260-1742

Nurse's Office News

BLOOD TEST
MONKEYPOX VIRUS

-
+

원숭이 두창?!
Monkeypox?!

07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원숭이두창?!

Monkeypox?!

질병관리청은 국외 원숭이 두창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2022년 6월 원숭이두창을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n June 2022,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esignated monkeypox as a second-level infectious disease and is strengthening surveillance, explaining that the possibility of domestic inflows of monkeypox is increasing gradually as the number of foreign monkeypox patients is increasing. Below are some tips for early detection and spread prevention of monkeypox.

발진 특징

Rash Features

-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
- Starts at your head and proceeds to your full body limbs
-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발진
- Blisters with clear boundaries and a central rash
- 대부분 같은 단계의 발진
- Rash that mostly develops through the same stages
- 손·발바닥 침범
- Hand and plantar invasion

임상 양상

Clinical Aspects

- 발열+두통+근육통부터 시작
- Starting with fever+headache+muscle pain
- 고열 가능
- High temperature possible
- 발열 1~4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
- A rash occurs after 1-4 days of fever

림프절 비대

Lymph Node Hypertrophy

- 주로 목, 겨드랑이, 서혜부
- Appears mainly at a neck, armpits, inguinal area
- 단단하고 압통 있음
- Hard and with pressure pain

감염 경로

Infection Route

- 설치류가 주 감염매개체
- Rodents are the main infection medium.
-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 (코로나19 같은 높은 전파력은 없음)
- Close contact with patients with symptomatic infections (Not infectious as COVID-19)

01. 원숭이두창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나요?

How does monkeypox spread to people?

-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 → 사람, 사람 → 사람, 감염된 환경 →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Monkeypox is a common infectious disease which spreads:
Animal → human, human → human, infected environment → human.

-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한 감염원과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It enters into a body through a skin wound or mucous membrane by direct contact of the source of infection.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액 등)

Blood or body
fluid(saliva, urine,
vomit, etc.) of the
infected patient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

Clothes, bedding,
needles, etc. infected
by the patient's blood
or body fluid



감염된 설치류(쥐, 다람쥐,
프레리도그 등), 원숭이 등 동물

From infected
rodents(rat, squirrel,
prairie dog, etc.),
monkey, other animals

02.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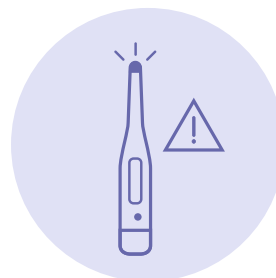
What are the main symptoms of monkeypox?

-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보이며, 몸의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발진이 확산됩니다.

A **fever**, headache, muscle pain, back pain, muscular weakness, chill, feeling of weakness, lymph node disease, etc. appear first. **After 1-3 days an eruption symptom appears mostly on the face and spreads to other body parts, especially the limbs.**

- * 구진성 발진*은 수포 → 농포 → 가피 등의 단계로 진행되며, 동일한 신체부위 내 발진은
주로 같은 진행 단계를 보입니다. (*동그란 붉은 반점 같은 발진)

A **spastic rash*** proceeds in the steps of blister → pustule → callus and **a rash within the same body part** follows the same process most of the time. (*A rash appears as a round red spot.)



03. 원숭이두창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How do we prevent monkeypox infection?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손 씻기 등)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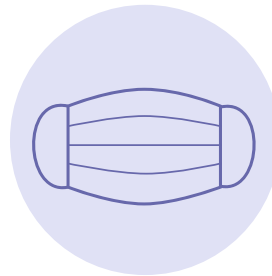
Wear your mask and follow personal hygiene guidelines(washing your hands, etc.) and do not touch your eyes, nose, mouth, or mucous membrane with unwashed hands.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할 경우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Refrain from visiting areas where monkeypox is ongoing and if you must visit, wear personal protective gloves and mask.

-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해주세요.

Keep yourself from wild animals and be cautious of wild animal meat handling · intake.



질병관리청, 2022. 06. 22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Jun 22th, 2022.

Creative Corner



세바오(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 분)

Sebao (5 Mins that Change the World)

영화 모티브로 시 쓰기

Poem Inspired by Painting

08

세바오(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 분) Sebao(5 Mins that Change the World)

‘세바오(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분)’는 5~10분간 청중 앞에서 재미, 정보, 감동을 주는 말하기를 하는 10학년 국어 수행평가입니다. 그 중 한 학생이 발표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By **곽인옥 | 10학년 국어교사**
Ms. In Ok Kwak · Grade 10 Korean Teacher

'Sebao (5 Mins that Change the World)' is an assignment for Grade 10 students taking Korean Language Arts, in which they present a 5-10 min speech in front of an audience. The following is a story presented by one of the students.

최악의 상황 The Worst Situation

여러분은 최악의 순간, 예를 들면 AP 과제가 60개가 된다거나, 시험을 망쳤을 때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나요? 아니면 매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힘들어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알차게 살아가나요? 제 경험을 통해 이 부분에 관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 하시지만 그중에서도 3년 전, 제가 명확하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중국에서 다녔는데 진짜 하루에 순수 14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하루는 '발표는 하나도 안 시키고 읽고 쓰고 외우기만 하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학만이라도 좀 프리한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길고 긴 상담과 대화를 나누고 또 끊임없이 어필한 결과 혼자서 겨울방학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1월 말에 가려고 비행기표까지 사놓고, 다닐 학원이라 거주할 곳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기 이틀 전에 필리핀 제일 작은 화산인 따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따알 화산이 폭발했다는 기사를 본 그 순간 제 심장이 진짜 철렁했지만 '설마 내가 가려던 곳 주변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그날 저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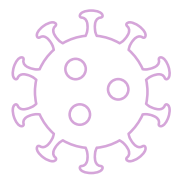
By **김주은 | 10A** · Zhuen Jin

Do you get frustrated and give up everything at the worst moment, for example, when you have sixty AP assignments, or when you messed up on your exam? Or do you value your time every day and live fruitfully in spite of difficulties? I would like to share my thoughts about this question that was formed through my experience. I believe God always works, but it was back three years ago, when I learned personally how He works in all situations, even in the worst situations.

I went to a middle school in China and spent literally 14 hours a day at school. One day, I thought, 'I don't want to simply read, write, and memorize without presenting my own thoughts.' I wanted to study in another style at least during a vacation. So after a long consultation with my parents and after I did my best to convince them in our conversations, I finally got permission from my parents to go to the Philippines for language training. I still remember exactly how I booked an airplane ticket to leave in November and found a place to go to and to stay at during a winter vacation.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내가 가려던 곳이 그 화산이랑 가까워서 필리핀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시치미 떼고 부모님께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라고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주은아 좀 앉아볼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진짜 그 얘기 하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비장하게 앉았죠. “주은아, 따알 화산이 폭발했는데 네가 가려고 계획했던 장소와 굉장히 가까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화산재 때문에 이사하고 심각한 상황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듣자마자 눈물이 주룩룩 흘렸고 그날 밤 폭풍 오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이미 짐을 다 싸고 어학연수를 몇 달간 준비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모든 게 무산됐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날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왜 일 하시지 않는 거예요?’라며 원망하고 화내면서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후유증도 오래 가서 슬픈 노래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우울한 상태로 거의 2주 동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상태가 많이 심각해져서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많이 어두워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12월에, 지금은 아주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어마무시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을 알고 나서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부모님과 안전하게 코로나 기간을 보내게 하시려고 나를 중국에 남아있게 하셨구나...’라고 확 와닿더라고요.

But the smallest volcano in the Philippines, named Taal Volcano, exploded two days before the date of my departure. When I saw the news, I was shocked, but thought 'It can't be the place I've planned to go to.' However, that night, when my parents arrived at home, they seemed to have something to say to me. I got the hint that I might not get to go due to the explosion because it was near my destination, but I innocently asked them, "What's wrong?" As I figured, they answered "We need to talk." I sat in front of them, thinking 'It must be about the explosion...' "Zhuen, the Taal Volcano has exploded and it's near the place you were planning to go to. The people living there are trying to move and it's more serious than you think." The moment I heard these words I couldn't stop tears from flowing down my eyes and cried myself to sleep. I couldn't hide my disappointment because I had planned the trip for months and packed all my bags a week ago.

I expressed my resentment to God. 'God!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You know how long I have planned for this! Why aren't you working things out?' I was frustrated and was sure that God was not walking with me anymore. For two weeks, I was in a gloomy state, in deep shock of the situation and listened to songs that reflected how I felt. It led me to a deeper depression, which turned me into a dark person. I thought that this was the worst of the worst situations.

Then, a few weeks later in December, the COVID-19 pandemic became the biggest news. After this enormous disaster, I finally realized! 'Now I see that God truly loves me, that He kept me from leaving home and put me close to my parents in China. I could have had to face bigger problems if I'd just left.'

이제 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바둥바둥하며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을 깊게 후회합니다. 그 시간들을 오히려 의미있게 이용해서 나를 한 층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아쉬움.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알차게 보낼 걸'하는 생각.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숙해져가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최악의 상황을 뚫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느끼기에 ‘정~말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처럼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되고 어두운 곳에서 빨리 나오기를 노력하고 내 앞에 놓인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삶을 알차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자”라는 마인드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세요! 주님은 최악의 상황을 뚫고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I believe that God works in the midst of all situations! And I deeply regret how I reacted, not believing God's working hands and guidance during the dark times. I could have used it more meaningfully by growing. 'Let's not waste our time and spend each day meaningfully.' Rather, I would have been able to overcome difficulties, mature, and do more things.

I want to say: “God works through the worst situations!” God is still working under any circumstances, and God is working even when I feel that ‘It's just too hard and too dark.’ So believe that He is working, do your best to get out of despair by facing every day with faith and work it out to live fruitfully! Live even in the worst situation and say “God works, and So will !!” God works through the worst.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tory.

명화 모티브로 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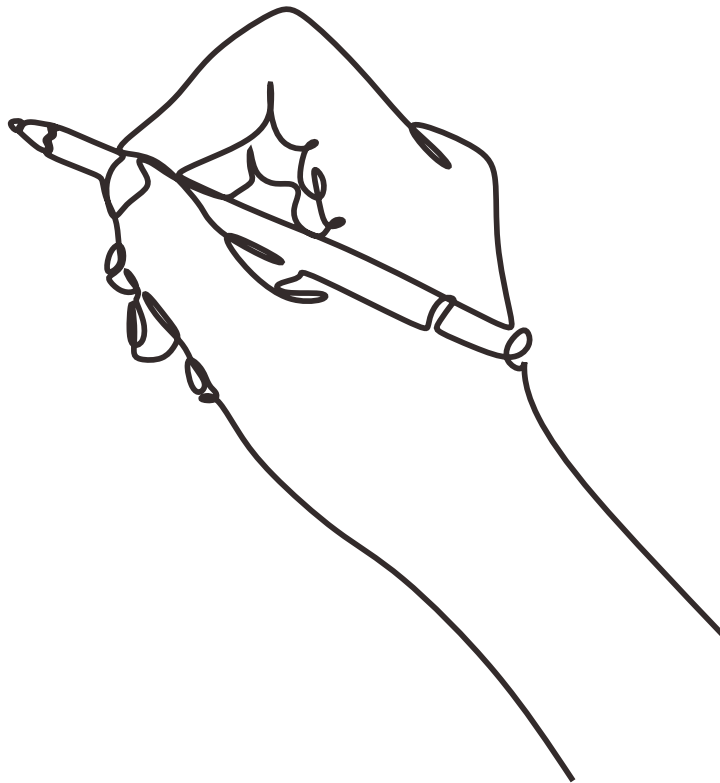
Poem Inspired by a Famous Painting

11학년 문학 시간에 다양한 표현법과 심상을 배웠습니다. 이후 명화를 직접 고르고, 그림 속 이미지와 메시지를 활용해 시를 쓰는 수행과제를 하였습니다.

By 김장미 | 11학년 문학교사

Ms. Jangmi Kim · Grade 10 Korean Literature Teacher

In the 11th graders' literature class, students learned various expressions and imagery. Then they chose a famous painting and composed a poem using the images and messages in the painting.





René Magritte, 1929, 'The Treachery of Image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he_Treachery_of_Images

글의 배반

The Betrayal of

파랗게 모인 담뱃잎 위에 불을 피우면
 뜨겁게 일렁이는 연기를 따라 나의 시선도 높아만 갑니다.
 올려다보이는 하늘이 너무나 낮은 탓에
 나는 당신께 입을 맞춥니다.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다만 그것은 파이프가 아니기에.

검게 모인 글자들 사이에 꽃을 피우면
 날카롭게 펄럭이는 종이를 따라 나의 시선도 낮아만 갑니다.
 내려다보이는 마음이 너무나 높은 탓에
 나는 당신께 이별을 고합니다. 잔혹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다만 그것은 시가 아니기에.

마음은 하늘입니다.
 시는 파이프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시인 | 이주형 • 11B

Poet | Juhyeong Lee • 11B

When I light a fire on the green tobacco leaves
 Following the hot smoke, my gaze rises as well.
 Because the sky I look up at is so low
 I kiss you. To inhale the pungent smoke.
 But it's not a pipe.

When I bloom flowers among the black letters
 Following the sharply fluttering paper,
 my gaze goes down as well.
 Because my heart looking down is too high
 I say goodbye to you. To love a cruel world.
 But it's not a cigar.

A heart is a heaven.
 A poem is a pipe.
 I am you.



Hwangmyonongjeopdo, 'A cat and a butterfly' (Wikip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wangmyo.jpg>

황묘농접도

A Yellow Cat Teasing a Butterfly

길을 가다 노오란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다
 석청石淸보다 진한 황빛을 띄는 등허리와
 목화솜마냥 보들보들해보이는 새하얀 배
 뭉가 그리 신이 났는지 온 몸을 쉴룩거리며 걸어간다

고양이가 석죽石竹 옆을 지나간다
 단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와버린 황선비에 놀랐는지
 채 피지 않은 꽃잎 사이로 하이얀 꽃들이 얼굴을 붉힌다
 마음씨 고약한 선비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꽃 처자 옆에 자리잡고 그대로 앉아버렸다

나비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날아간다
 목빛 비단같은 날개에 자개를 알알이 박아넣은 손님은
 노오란 동무에게 날아가 오랜만이라며 인사한다
 황선비도 친우를 보고 반가웠는지
 고개를 돌리고 몸을 들썩거린다

시인 | 장영 · 11C

Poet | Young Jang · 11C

On the way, I saw a yellow cat
 With a back that has a darker yellow
 color than that of wild honey
 And a belly that looks as soft as cotton wool
 So excited and walking with his
 whole body twitching

The cat is passing by China pinks
 Perhaps surprised by the yellow seon-
 bi's visit not fully dressing up
 Their white flowers are blushing their
 faces among the unopened petals
 Did the nasty-hearted seonbi like them?
 He took a seat by the flower girls there

A butterfly is flying to the cat
 The guest who put mother-of-
 pearls in its dark silky wings
 Is greeting its yellow friend saying it's been a while
 Is the yellow seon-bi happy to see his close friend?
 He is turning his head and shaking his body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